

광주FC '달구벌 무패' 깨졌다

대구FC와 K리그1 12R 2-3 역전패...3연승도 좌절 후반 42분 페널티킥 허용...이건희·변준수 골 빛바래

광주FC가 대구FC에 다시 한번 달미를 잡혔다. 광주가 지난 1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FC와의 K리그1 2024 12라운드 대결에서 2-3 역전패를 기록했다. 대구원정 무패 잇기와 3연승을 겨냥했던 광주는 후반 42분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7경기 연속 무승에 빠진 상태, 올 시즌 1승 밖에 없는 대구에게 기록한 뼈아픈 패배다. 대구의 앞선 1승도 광주전에서 기록됐다. 광주는 지난 3월 31일 대구와의 4라운드 홈경기에서 '무키' 문민서의 데뷔골이자 페널티킥골로 선제골을 장식하고도 1-2 역전패를 당했다.

전반 5분 만에 이견희가 골을 신고하면서 최근 5번의 대구 원정에서 4승 1무를 기록한 광주의 '대구 강세'가 계속되는 것 같았다.

정호연이 왼쪽 측면을 파고든 뒤 이견희에게 공을 넘겼다. 페널티아크에서 공을 잡은 이견희가 왼발 터닝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견희의 시즌 3호골이자, 정호연의 두 번째 도움.

하지만 2분 만에 광주가 동점을 허용했다.

광주 진영에서 공을 뺏은 세징야가 문전으로 뛰어 들던 박용희에게 공을 넘겼다. 골키퍼 김경민을 마주한 박용희가 오른발로 골망을 흔들면서 승부가 이내 원점으로 돌아갔다.

경기 시작과 함께 한 골씩 주고받은 두 팀, 전반 9분 광주가 다시 리드를 가져왔다.

프리킥 상황에서 두현석이 키커로 나섰다. 앞선 실점 장면에서 공을 내줬던 두현석이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골대 왼쪽에 있던 변준수의 머리로 정확히 배달된 공은 이내 역전골이 됐다.

대전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광주 유니폼을 입은 변준수의 시즌 마수걸이 골, 두현석은 3번째 도움으로 앞선 실수를 만회했다.

광주가 분위기를 살려 추가골 사냥에 나섰다.

전반 20분 이견희가 오른발로 때린 슈팅이 아쉽게 골대 맞고 흘렀고, 24분 변준수의 슈팅은 대구 골키퍼 최영은에게 막혔다.

그리고 이어진 대구 공격에서 광주가 동점을 허용했다.

벨톨라가 넘긴 공을 세징야가 잡아 페널티박스로 진입했다. 왼쪽에서 전진한 세징야가 왼발로 패스를 했고, 중앙에서 달려든 정재상이 공을 잡아 왼발로 광주 골대를 갈랐다.

골키퍼가 벌어진 뒤 양 팀 골키퍼들의 호수비가 이어졌다.

후반전 광주가 승리를 잡기 위한 공세를 펼쳤지만 대구 골대가 쉽게 열리지 않았다.

후반 시작과 함께 그라운드에 투입된 엄지성이 후반 11분에 때린 슈팅이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났다. 18분에는 정지용의 슈트 골키퍼 손에 걸렸다. 2분 뒤에는 가브리엘이 오른발로 때려낸 슈팅을 선보였지만 이번에도 골키퍼에 막혔다.

몇 차례 득점 기회가 무위로 끝난 뒤 대구가 광주를 압박했다. 후반 34분 수문장 김경민이 세징야의 위협적인 슈트를 저지했지만 후반 40분 페널티킥 상황에 직면했다.

세징야가 오른쪽에서 길게 올린 공이 페널티 박스에 있던 대구 김영준을 향했다. 이삼기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영준이 넘어졌고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세징야가 키커로 나서 오른발로 광주 골대를 가르면서 승리는 대구의 차지가 됐다.

한편 엄지성은 이날 후반전 교체 출전하면서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다. 광주 금호고를 졸업한 뒤 광주 유니폼을 입고 이룬 100경이다. 이날 엄지성은 5개의 슈팅을 날리며 100경기 자축골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고, 팀의 패배에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김여울 기자 wool@



1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광주FC와 대구FC의 K리그1 2024 12라운드 대결에서 전반 9분 변준수(오른쪽)가 득점에 성공한 뒤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손흥민 '폴타임'... 토트넘 4강 '불씨'

번리에 2-1 역전승...4연패 탈출

'캡틴' 손흥민(사진)이 폴타임 출전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이 번리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고 4연패 수렁에서 탈출, 4위 탈환의 '실낱 희망'을 이어갔다.

토트넘은 12일 끝난 번리와 2023-2024 EPL 37라운드 홈 경기에서 2-1로 역전승했다.

이날 승리로 최근 4연패 부진에서 벗어난 5위 토트넘(승점 63)은 4위 애스턴 빌라(승점 67)와의 승점 차를 4로 줄였다.

이에 따라 토트넘은 14일 오전 펼쳐지는 애스턴 빌라와 리버풀의 37라운드 경기에서 애스턴 빌라가 승리하지 못하면 4위 달성의 희망을 살려가게 된다.

이날 37라운드를 치른 토트넘은 순연된 34라운드(15일 오전 4시 맨시티)와 38라운드(20일 0시 셰필드) 2경기를 남겼다.

14일 리버풀과 37라운드를 앞둔 애스턴 빌라는 20일 크리스탈 팰리스와 최종전을 펼친다.

애스턴 빌라가 남은 두 경기에서 한 경기만 이기면 토트넘이 두 경기 전승을 해도 '4위 탈환'은 물거품이 되고,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본선 진출권도 날아간다.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번리를 상대로 4-3-3 전술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해 후반에는



왼쪽 윙어로 뛰면서 폴타임을 소화했지만, 유효슈팅은 1차례밖에 기록하지 못하며 공격포인트를 쌓지 못했다.

이날 경기 직전까지 리그에서 17골 9도움을 작성한 손흥민은 '10-10' 클럽(10골 이상·10도움 이상) 달성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손흥민은 정규리그 남은 2경기에서 도움 1개만 추가하면 2019-2020시즌(11골 10도움), 2020-2021시즌(17골 10도움)에 이어 EPL에서 개인 통

산 3번째 10골-10도움을 달성한다.

토트넘은 전반 초반부터 손흥민의 적극적인 공격 기담으로 번리를 압박했지만, 오히려 선제골을 내줬다.

번리 야콥 브론 라르센이 전반 25분 역습 상황에서 선제골을 쏘았다.

곧바로 반격에 나선 토트넘은 전반 32분 페드로 포로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빠르게 쇄도하며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전반을 1-1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 33분 손흥민이 골 지역 오른쪽으로 파고든 뒤 내준 크로스를 브래넨 존슨이 골대 오른쪽에서 발을 뻗었지만,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손흥민의 결정적인 도움 기회가 날아간 상황이었다.

토트넘은 후반 37분 공격에 기댄 중앙 수비수 미카 판더펜이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왼발 슈팅으로 역전 결승 골을 뽑아내 2-1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트넘에 역전패한 번리(승점 24)는 EPL 잔류의 마지막 선인 17위 노팅엄 포리스트(승점 29)와 승점 차가 5점으로 벌어져 리그 최종전 결과에 상관 없이 2부 강등(18~20위)의 고배를 마셨다.

지난 시즌 챔피언십(2부)에서 우승하며 EPL로 승격한 번리는 한 시즌 만에 다시 2부리그로 돌아간다. /연합뉴스

'물병 부상' 조코비치의 재치 "오늘은 헬멧 쓰고 사인해요"

경기를 마치고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다가 머리에 물병을 맞은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가 또 한 번 특유의 유머 감각을 발휘했다. 조코비치는 12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사이클 헬멧을 쓰고 연습장에 도착하는 영상을 올리고 "오늘은 준비해서 왔다"는 설명을 달았다. 이 영상에서 조코비치는 사이클 헬멧을 쓰고 연습장에 도착한 뒤 팬들에게 사인을 해줬다. 세계 랭킹 1위인 그는 전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네셔널(총상금 787만7020 유로) 단식 2회전 코랑탱 무테(83·프랑스)를 2-0(6-3 6-1)으로 물리친 뒤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다가 관중석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재질의 물병에 머리를 맞았다.



조코비치 소셜 미디어 영상 화면 캡처.

AP통신은 "한 관중의 가방에서 물병이 떨어졌다"고 전하는 등 고의로 조코비치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조코비치는 머리 부위를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코트 바닥에 엎드렸다가 경기 진행 요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코트 밖으로 이동했다.

이후 이탈리아테니스협회는 "약간의 출혈이 있지만 껍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조코비치의 상태를 설명했다.

조코비치 역시 이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걱정해주신 응원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며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저는 숙소에서 일을 마시기를 하며 괜찮아졌다"고 팬들을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경기가 없는 12일 연습장에 사이클 헬멧을 쓰고 등장하는 퍼포먼스로 오히려 팬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조코비치는 평소 다른 선수들의 루틴을 흉내 내거나 볼 퍼슨에게 오히려 우산을 씌워주는 등 경기장 안팎에서 익살스러운 행동을 잘하는 편이다.

조코비치는 13일 알레한드로 타빌로(32위·칠레)와 16강 진출을 다룬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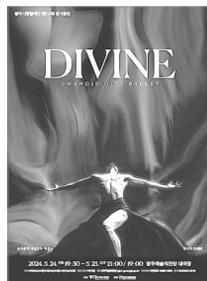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5월)
일시 : 2024-05-04(토) ~ 2024-05-26(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광주시립발레단 제137회 정기공연 「DIVINE」
일시 : 2024-05-24(금) ~ 2024-05-25(토)
05.24.(금) 19:30
05.25.(토) 15:00,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

